

우한 의료진 ‘연쇄 비극’

비상 근무 우창 병원장 희생 아내와 문자 중국인들 눈시울 과로 간호사 확진 7일만에 사망 부모·남동생 3명도 희생

올해 59세인 류판은 우창병원이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교대 근무를 해오다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과로로 몸이 약해진 류판은 병세가 빠르게 악화해 확진 판정 7일만인 지난 14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류판의 부모와 남동생도 류판이 사망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돼 세상을 떠났다.

우창병원은 “류판이 환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했으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면서 “이런 좋은 동료이자 간호사 한 명을 떠나보내야 할 매우 참담한 심정이다”고 조의를 표했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우창병원 의료진 900여명을 이끌며 최전선에서 분투하던 류즈밍 원장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류즈밍 우창병원 원장이 숨지기 전 아내와 나는 위착(중국판 카

카오텍) 대화 내용을 공유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류즈밍 원장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 이후 병원에서 비상 근무하며 한 번도 귀가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도 병원에 머물렀으며, 우한 시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아내 차이리핑과 가끔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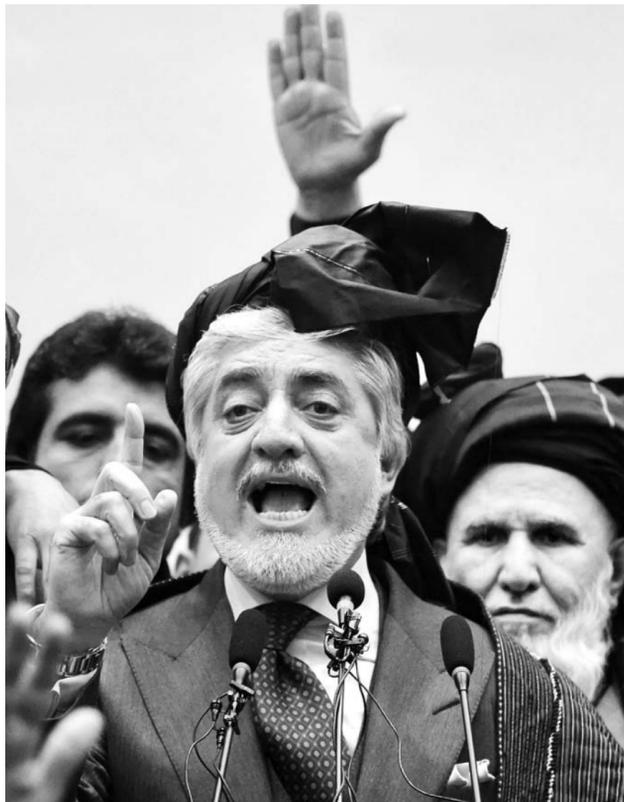
당시 부부간 대화 내용을 보면 차이리핑은 남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직접 간호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류즈밍 원장은 이를 거절한다.

류즈밍 원장은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끝까지 아내를 걱정해 간호를 거절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눈물이 나서 대화를 끝까지 읽을 수 없다”, “그들의 희생을 꼭 기억하겠다” 등 조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네이멍구 의료진 후베이성 파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확산 중인 중국 후베이성에 파견되는 네이멍구 자치구 의료진이 18일 후허야오터 바이타 국제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간 야권 대선후보 “가니 재선 승복 못해”



아프가니스탄 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아슈라프 가니 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8일 치러진 대선 최종 개표결과 50.64%로 과반을 득표해 당선됐다고 발표한 직후 당시의 야권 후보 압둘라 압둘라 최고 행정관(총리 역할)이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 투표가 난무했던 이번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진핑 책임론’ 확산

중 언론·학계, 코로나19 안이한 대처·언론 통제 비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직접 묻는 중국 지식인들의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최고 명문대학인 베이징대 법학 교수인 허웨이팡은 지난 17일 위챗을 통해 언론에 ‘진실 서한’을 보냈다.

허 교수는 서한에서 지난해 12월 1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지난날 20일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실태를 공개하기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고 들었다.

또 지난달 7일 중국 공산당 최고 회의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시 주석이 코로나19 대응을 지시했다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 추스의 보도를 통렬하게 반박했다.

허 교수는 “충격적인 사실은 신화통신을 비롯한 어떠한 관영 매체도 시 주석의 지시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최고 지도자의 지시조차도 검열당해 ‘봉쇄’된 것 아니냐”고 조롱했다. /연합뉴스

1월 7일 상무위 회의는 홍콩 언론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명보는 당시 시 주석이 “예방 조치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도 지나치게 공포심을 불러 다가오는 존재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면서 이러한 지시가 이후 후베이성과 우한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불렀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집권한 후 중국 당국은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언론과 학계, 지식인 이론지 추스의 보도를 통렬하게 반박했다.

하지만 이달 초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했던 의사 리원량의 죽음 이후 중국 지식인들은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

칭화대 법학 교수 쉬장룬은 최근 여러 해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통해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실패한 것은 중국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자유가 말살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있는 화중사범대학의 탕이밍 국학원 원장과 동료 교수들은 공개서한을 내고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부재”라고 주장했다.

중국 지식인 수백 명은 최근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5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WHO “도쿄올림픽 연기 판단 일러”

긴급대응팀장 “결정은 일본 몫”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쿄올림픽 취소나 연기 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브리핑 후 AP통신과 별도로 대화하면서 일본의 올림픽 주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조언을 하기에는 행사 일정까지 시간이 “한참 남았다”면서 바이러스가 올림픽에 위협이 될지를 말하기란 너무 이르다고 답변했다.

라이언 팀장은 “우리는 그것(연기나 취

소)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결국 판단은 주최국의 몫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WHO는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도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에 관한 질문에 개최 여부를 주최국에 달렸다고, WHO는 위험 평가 등을 위해 기술적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매년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는 행사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 취소되는 등 국제행사의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임기만료 앞두고 개헌 의지

“미래 향한 나라 만들기 완수” 당 운동방침에 지침 담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재집권 후 처음으로 당 운동방침에서 개헌을 전면으로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당 대회에 제출할 운동방침 원안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개헌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다.

여기에는 ‘헌법 개정 원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데 힘을 다한다’는 내용과 ‘미래를 향한 나라 만들기를 완수하기 위해 헌법 개

정을 목표로 한다’는 지침이 담겼다. 자민당은 당과 회파(會派·원내에서 활동을 함께 하는 의원 그룹으로 한국 국회의 교섭단체와 유사함)의 틀을 넘어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개헌을 운동방침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룬 것이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후 처음이며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간단하게 다룬 작년과는 대비된다고 전했다.

다만 올해 자민당 당 대회는 예정대로 개최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자민당이 당 대회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





문의 상담 062) 945-0036~7